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LAST DUCHESS

가제 : 마지막 대공비

저자 : Laura Powell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하루 아침에 고아 신세가 되어 하녀로 자란 소녀, 대공비의 몸종이 되면서 완전히 바뀐 운명

굉장히 조용하고 체구도 작고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방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마저 잊게 만드는 열 세살 소녀 패턴. 완벽한 하녀의 자질을 두루 갖춘 패턴은 아직 어린 나이지만 민친 부인이 운영하는 ‘하인 아카데미’에서도 그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린넨에 찌든 고약한 얼룩을 말끔히 지우는 일부터, 옷감을 자국 하나 보이지 않게 껴매줄 아는 것은 물론 모자 손질, 완벽한 곱슬머리를 만드는 머리 손질 솜씨까지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다. 단추 하나, 머리핀 하나도 허투루 관리하지 않는 꼼꼼한 성격까지 갖춘 패턴은 그야말로 최우수 하녀다. 하지만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엘핀버그의 대공비를 직접 모시는 몸종으로 패턴이 선택됐다는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놓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다. 하인 아카데미를 졸업한 열여섯 살짜리 소녀들도 많았지만, 워낙 까다로운 대공비의 기준에 맞는 후보를 고르고 또 고르다 보니 어리지만 영리한 패턴이 후보로 낙점된 것이다.

사실 패턴의 짧은 인생은 참 기구했다. 패턴은 갓난아기 때 요람에 담긴 채 엄마, 아빠와 함께 배에 올랐다가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이 익사하고 겨우 살아남은 선원 몇몇의 손에 들려 고아원에 보내졌고, 하인 아카데미에서 살아왔다. 갓난아기일 때 벌어진 사고라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시 사고가 난 배에는 엘핀버그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모두가 패턴도 엘핀버그 출신이라 짐작하고 있었고, 이것이 대공비의 몸종으로 선택된 커다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대공비는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 출신 사람을 몸종으로 쓰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늘 어두침침한 저택 아래층에서 허드렛일만 하던 패턴의 삶은 이제 앞으로 최소 7년 동안 대공비의 시중을 들면서 해외 곳곳을 따라다니는 생활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는 “넌 정말 엄청나게 운 좋은 아이야.” 민친 부인도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다.

작은 영토를 지배한 초자연적인 믿음, 숨겨진 존재의 위험, 이 모든 것과 싸우는 열세살 소녀

누더기 같은 옷과 좁고 지저분한 기숙사 생활, 못된 친구들과 지내야 했던 학교 생활이 그리울 리는 없는데, 다 두고 떠나는 패턴은 왠지 기쁘지만은 않았다. 떠나는 날, 민친 부인이 건넌 <여자 주인님을 섬기는 몸종의 의무>라는 제목의 책 한 권을 쥐고 그렇게 패턴은 낯선 곳, 낯선 주인을 만나러 떠난다.

대공비 역시 최근 어린 나이에 양친을 여윈 고아였다. 아주 활기찬 소녀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왕관을 빼앗으려 한다는 지독한 의심에 시달리는 그녀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게다가 런던에서 살던 패턴의 눈에는 엘핀버그 사람들이 온갖 미신을 믿으며 생각보다 작은 영토에 살아가는, 비밀 많은 시골 사람들로 보였다. 패턴은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보지만, 떠날 때부터 따라다닌 불길한 기분은 영 가시지가 않았다. 그래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패턴은 대공비와 예상 밖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커다란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소녀는 좋은 친구가 된다. 하지만 그 즐거운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위를 둘러싼 싸움 속에서 흔들리고 만다. 겉보기에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엘핀버그에는 패턴의 직감처럼 뭔가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 과연 패턴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

<저자 소개>

로라 파월(Laura Powell)은 브리스톨 대학교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하고 여러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다. 《Burn Mark》, 《Goddess》 등의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 : EVERY LAST PROMISE
가제 : 마지막 한 마디 약속까지
저자 : Kristin Halbrook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5년 4월 2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고향에 영원히 눌러 살고 싶어 하는 소박한 여학생, 끔찍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면서 뒤바뀐 삶

고등학교 2학년생인 카일라는 미주리 주 원브룩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계속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카일라는 얼른 대학에 입학해서 더 큰 도시로 떠날 날만 기다리는 친구들과 달리, 평생 원브룩에서 살고 싶어하는 소녀였다. 켄, 셀레나, 빈과 넷이서 돌돌 뭉쳐 지내면서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던 카일라의 삶은, 어느 날 벌어진 악몽 같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따스한 봄 날, 켄이 파티를 열었던 날 그 사건이 벌어졌다. 파티장에서 나온 카일라가 몰던 차가 배수로에 쳐박히면서 같은 학교 남학생 하나가 사망하고, 켄의 쌍둥이 동생과 유명한 풋볼 선수인 제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것이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겪은 카일라는 큰 충격에 빠져 그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차를 몰고 파티장을 나서기 몇 시간 전, 그녀는 파티장에서 보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를 목격해버렸다. 그리고 그 일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마음을 추스르려 일단 원브룩을 벗어나 여름 방학을 캔자스 시티에 계시는 이모 댁에서 보내기로 한 카일라. 그녀가 그날 밤 성폭행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목격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모 댁으로 떠나기 전 몰래 빈과 만나서 했던 약속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힘들었던 방학이 지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온 카일라. 하지만 학교도 마을도 더 이상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온 학교 아이들이 ‘살인자 카일라’라고 수군대며 사고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고, 그토록 친했던 켄과 셀레나마저 그녀에게 등을 돌린다. 빈은 무리에서 떠나 다른 친구들과 지내는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다 잊고 예전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생활을 할 수 있기만을 고대하던 카일라는 큰 절망에 빠진다. 애써 모른 척 지내보려고 애쓰지만, 어떻게 해도 예전 생활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이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고 당일 본 일들을 모조리 말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지고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제 모든 선택은 카일라의 손에 놓인 상황.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는 것, 혹은 그 반대의 선택, 정답이 없는 딜레마

개인의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과 정의. 작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이 고민에 성폭행 사건이라는 무거운 사회적 문제를 결합시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차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과 사고가 난 이후의 상황을 번갈아 가며 묘사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상황을 보여주면서 카일라가 맞닥뜨린 딜레마와 완전히 뒤바뀐 일상을 선명하게 대비시킨다. 더불어 성범죄가 날로 늘어간다는 통계 결과와 달리, 왜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지 소설 속 상황을 통해 그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해보게 한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홀브룩(Kristin Halbrook)은 워싱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영문학과 여성학을 공부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다가 작가로 활동 중이다. 2013년에 데뷔 소설 《Nobody But Us》를 발표했다.